『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6)*
-권8, 10:12-11:23 부분을 중심으로-

김성주**

요약

이 글은 『瑜伽師地論』(Yogacārabūmmi)의 출현하게 된 배경과 전체 구조를 간략히 언급하고 점토구결 자료 『瑜伽師地論』 권8의 10:12-11:23 부분의 잠정적인 해독안을 제시한 것이다.

1. 『瑜伽師地論』의 출현과 전체 구성

小乘佛教가 阿羅漢을 目的으로 하는 聲聞思想이라면 大乘佛教는 成佛을 目的으로 하는 菩薩思想이다. 부처님이 滅道하신 100년 후 쯤이 되면 戒律에 따라 嚴格하게 生活할 것과 教法도 契經에 설해져 있는 대로 해야 한다는 上座部와 戒律은 定을 위한 方便이므로 融通性을 發揮할 수 있으며 教法에 있어서도 契經의 逐字的인 解釋보다는 글자 속에 담긴 속뜻을 追究하였던 大衆部로 分裂되었다.

---

* 이 글은 구결학회 월례강독회(2004년 5월 29일, 6월 26일, 10월30일)에서 배포한 강독 자료를 강독할 때 나온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결과다.

**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이것을 佛敎史에서는 根本 分裂이라 하는데, 佛滅 후 4백년 경에는 약 20部派로 分裂되었다 한다. 『阿毘達磨大毘婆沙論』이 出現한 AD 150년 경까지는 部派佛敎의 時期였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小乘佛敎는 佛敎史에서 그 時期가 確然하게 區分되는 것이 아니라 20개가 넘는 部派들 중 相對的으로 강했던 說一切有部와 輕量部 등이 强盛하던 時期를 말한다.

이 時期에 이어서 菩薩思想, 利他主義, 在家佛敎 등을 特徵으로하는 大乘佛敎가 發生한다. 大乘佛敎 初期에는 般若部 경전, 華嚴部 경전, 法華部 경전 등이 나타났는데, 반야부 경전에는 大品般若經, 金剛經, 般若心經 등이, 화엄부 경전에는 華嚴經이, 법화부 경전에는 法華經이 속한다. 初期 大乘經典의 出現 以後에 中觀思想을 代表하는 龍樹(Nāgārjuna; AD 150?-250?)가 『大智度論』 100권 등을 지었다

이후 中期 大乘佛敎 時期(AD 200~400)에는 涅槃經, 解心密經, 그리고 如來藏系의 제 經典이 出現하였으며 중기의 論師로는 彌勒(Maitreya), 無著(Asaṅga), 世親(Vasubandhu) 등이 있다. 이 글의 對象이 되는 『瑜伽師地論』(Yogacārabūṃmi)은 彌勒이 말하는 것을 無著이 받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高麗時代 字吐口訣 資料 또는 點吐口訣 資料로서의 『瑜伽師地論』 권3, 5, 8, 20은 玄裝에 의해 漢譯된 것으로 再雕大藏經에 실려 있다. 大乘佛敎 初期의 論師 龍樹의 思想을 空으로 代表되는 中觀佛敎라 한다면 中期 大乘佛敎의 論師 彌勒, 無着, 世親 등은 唯識佛敎의 論師들이며, 『瑜伽師地論』은 唯識佛敎 가운데서도 初期 唯識에 해당된다.

『瑜伽師地論』은 瑜伽觀行者의 境, 行, 果 등을 詳細하게 說明하고 唯識, 中道의 이치에 悟入할 것을 說하고 있다.

『瑜伽師地論』(Yogācāra-bhūmi-sástra; K-570(15-464). T-1579(30-279)) 100권을 내용에 따라 크게 나누면 아래와 같다.

제1 본지분(本地分) : 제01~50권.
제2 섭결택분(攝決擇分) : 제51~80권.
제3 섭석분(攝釋分) : 제81~82권.
제4 섭이문분(攝異門分) : 제83~84권.
제5 섭사분(攝事分) : 제85~100권.

제1 본지분(本地分)은 『瑜伽師地論』의 基本 部分으로 三乘의 근본 17地를 說明하고 있고, 제2 섭결택분(攝決擇分)은 本地分에서 자세히 설하지 못했거나 의문 나는 부분을 分別해서 설하고 있다. 제3 섭석분(攝釋分)은 經典의 體와 釋 등 12가지 사항에 대해서 논하고 있으며, 결국 이를 통해서 本地分과 攝決擇分의 解釋이 正當함을 立證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제4 섭이문분(攝異門分)은 스승, 제일(第一), 2혜(慧), 4種의 선설(宣說) 등 經典 가운데 들어 있는 여러 가지 用語들의 意味를 定義하고 있다. 제5 섭사분(攝事分)은 經 律 論, 3藏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의 의미를 包括하는 부분이다. 釋讀口訣 資料인 『瑜伽師地論』 권3, 권5, 권8, 권20은 모두 제1 本地分에 속하는 부분이므로 本地分의 內容을 좀더 詳細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 본지분(本地分)은 권1에서 권50까지이며 17地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17地의 內容과 該當 部分을 表示하면 아래와 같다.

제1 오식신상응지(五識身相應地, 제1권)
제2 의지(意地, 제1권 중간~제3권): 제3권
제3~5 유심유사등삼지(有尋有伺等三地, 제4권~제10권): 제5권, 제8권
제6 삼마사다지(三摩呬多地, 제11권~제13권 앞)
제7 비삼마사다지(非三摩呬多地, 제13권 중간)
제8 유심지(有心地)와 제9 무심지(無心地, 제13권 후반)
제10 문소성지(聞所成地, 제13권 후반~15권)

제11 사소성지(思所成地, 제16권~19권)
제12 수소성지(修所成地, 제20권): 제20권
제13 성문지(聲聞地, 제21권~제34권)
제14 독각지(獨覺地, 제34권)
제15 보살지(菩薩地, 제35권~50권)
제16 유여의지(有餘依地, 제50권)
제17 무여의지(無餘依地, 제50권)

따라서 釋讀口訣 資料인 卷3은 제2 意地의 3-3 부분이고, 卷5는 界施設建立 중 受用의 中間 部分이며, 卷8은 雜染施設建立의 始作 部分이고, 卷20은 제12 修所成地를 다루고 있다.

이 글의 대상인 『유가사지론』 권8은 제3 유심유사지(有尋有伺地), 제4 무심유사지(無尋唯伺地), 제5 무심무사지(無尋無伺地) 등 유심유사등삼지(有尋有伺等三地)를 다룬 제4권에서 제10권 사이에 해당되는데, 有尋有伺等三地는 크게 ㉠界施設建立 ㉡相施設建立 ㉢如理施設建立 ㉣不如理施設建立 ㉤雜染施設建立 등으로 나눌 수 있고, ㉠界施設建立이 권4와 권5에 ㉡相施設建立이 권5의 16:10부터, ㉢如理作意施設建立이 18:01부터 ㉣不如理作意施設建立 권6, 권7에 ㉤雜染施設建이 권8, 권9, 권10에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권8은 ㉤雜染施設建의 1.煩惱雜染 2.業雜染 3.生雜染 중 ㉤1.煩惱雜染과 ㉤2.業雜染의 일부분이 실려 있다.[1] 이 글의 내용은 권8의 10장 12행부터 11장 23행까지이므로 ㉤雜染施設建 ㉤2.業雜染 ㉤2.2.業分別 ㉤2.2.1.補特伽羅相差別建立 ㉤2.2.1.1.十不善業 ㉤2.2.1.1.1.殺生<10:06>의 중간부터 ㉤2.2.1.1.2. 不與取의 끝부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독안은 아래와 같이 A, B, C, D, E 다섯 항목으로 나누

1)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박진호(2004)를 참조.

어 해독안을 제시한다.

A: 한문 원문 순서대로 각 한자에 현토된 점토의 위치 및 형태 표시
B: A의 점토구결을 자토구결로 바꾼 것
C: 우리말 어순으로 고쳐 자토 석독구결의 형식대로 바꾼 것
D: 문법 형태를 고려하여 현대어로 직역한 것
E: 동국대 역경원의 한글대장경 부분

해독안

<유가08 10:12>

A: 有[52(·)]出家外道[22~32(·)]名[45(·)]曰[15~25(-)]无繫[53(·)?,+53(\)]
B: 有[ナ]出家外道[刂]名[ㄎ]曰[尸]无繫[亠,x亠]
C: 有ナ(丨) 出家外道刂 名ㄎ 曰尸 无繫亠x亠
D: 있다, 出家 外道가 일러 말하기를 无繫라 하는 이가.
E: 어떤 집 떠난 외도가 있으니 이름은 무계인데

<유가08 10:12-15>

A: 彼[=33(·)]作[역독선?]是說[45(\),15~25(\)]{33~43(·),52(·)}百踰繕那內[44(·)]所有[33(/),42(·)]衆生[44~55(\)]{34(·)}於彼[23(·),44(·)]律儀[31(·)]若不律[45(-),43(·)][2]儀[31(·),삐침선(42,\)]爲治[역독선]彼[34(·),31(·),45(:),43(·)]故[21(·)]說[역독선]如是[33(/)]言[34(·),14~15(|)]一切有情[23(·)]所[44(·),55(:),삐침선(42,\)]

2) 바로 아래의 '儀'字에 현토되어야 할 구결점이 여기에 현토된 것으로, 이런 경우 『유가사지론』에는 지시선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여기는 지시선이 보이지 않는다.

B: 彼[ㄱ]作是說[x入乙,x尸]百踰繕那內[十]所有[ㅅㄱ,七]衆生[x十]於彼[ㅋ,十]律儀[人]若不律[x入乙,ㅠ]儀[人]爲治彼[乙,人,x入乙,ㅠ]故[ㄴ]說如是[ㅅㄱ]言[乙,x尸]一切有情[ㅋ]所[十,xㅎ]

C: 彼ㄱ 是 說x入乙 作x尸 百 踰繕那[3] 內十 有ㅅㄱ 所七 衆生x十 {於}彼ㅋ十 律儀人 若 不律儀人x入乙ㅠ 彼乙 治(ㅅ){爲}人x入乙ㅠ{故}ㄴ 是 {如}(ㅈ)ㅅㄱ 言乙 說x尸 一切 有情ㅋ{所}[4]十xㅎ

D: 그는 이 말하는 것을 짓기를 百 踰繕那 안에 있는 바의 중생에게, 그에게 律儀와 및 不律儀한 것으로, 그를 다스리고자 하는 까닭으로 이와 같은 말을 이르기를 一切 有情에게 있다라고 하며,

E: 그는 말하기를 "백 요자나 안에 있는 바 중생의 그것에는 율의 또는 율의 아닌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를 다스리기 위하여 이와 같은 것을 말하고 "온갖 유정의 처소이다"라고 한다.

<유가08 10:15-17>

A: 卽彼外道[33(·)]復作是說[45(\),15~25(\)]樹等[33(/)]外物[44(·)]亦有生命[45(-),43(·),삐침선(42,\)]爲治[역독선]彼[34(·),31(·)]{12(·)}故[45(:),43(·)]說[역독선]如是[33(/)]言[34(·),14~15(|)#14~15(:)]眞實[45(·)]衆生{15(:),51(·)#51(·.)}所[44(·),51(:),삐침선(42,\)]

B: 卽彼外道[ㄱ]復作是說[x入乙,x尸]樹等[ㅅㄱ]外物[十]亦有生命[x入乙,ㅠ]爲治彼[乙,人]故[x入乙,ㅠ]說如是[ㅅㄱ]言[乙,x尸]眞實[ㅎ]衆生所[十,xㅣ]

C: 卽 彼 外道ㄱ 復 是 說x入乙 作x尸 樹 等ㅅㄱ 外物十 亦 生命有x入乙ㅠ 彼乙 治(ㅅ){爲}人{故}x入乙ㅠ 是 如(ㅈ)ㅅㄱ 言乙

3) 踰繕那(yojana) =由旬. 전륜성왕이 하루 동안 가는 거리로 약 40리 혹 30리라 한다.

4) '所'는 부독자가 아니라 처소를 가리키는 실사일 가능성도 있다. 이후의 동일한 환경의 '所'도 같다.

說x尸 眞實ㅎ 衆生(ㅋ){所}+x ㅣ

D: 곧 그 外道는 또 이 말하는 것을 짓기를 樹 같은 外物에 또한 생명이 있는 것으로, 그를 다스리고자 하는 까닭으로 이와 같은 말을 이르기를 眞實로 衆生에게라 한다.

E: 그 외도는 다시 말하기를 "나무 따위의 바깥 물건도 역시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를 다스리기 위하여 이와 같은 것을 말하고 "진실한 중생의 처소이다"라고 한다.

<유가08 10:17-18>

A: 此[33(·)]卽[21(·)]顯示[2자합부-역독선]眞實福德遠離對治[34(·),35(·)]{25(·),43(·)}及顯示不實福德遠離對治[34(·),35(·),51(:)]

B: 此[ㄱ]卽[ㄱ]顯示眞實福德遠離對治[乙,ㅎ]及顯示不實福德遠離對治[乙,ㅎ,x ㅣ]

C: 此ㄱ 卽ㄱ 眞實 福德 遠離 對治乙 顯示(ㅅ)ㅎ 及 不實 福德 遠離 對治乙 顯示(ㅅ)ㅎx ㅣ

D: 이는 곧 眞實 福德 遠離 對治를 나타내 보이고 및 不(眞)實 福德 遠離 對治를 나타내 보이고 하는 것이다.

E: 이는 곧 진실한 복덕으로써 멀리 여의고 다스리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과 진실하지 않은 복덕으로써 멀리 여의고 다스리는 것을 나타내 보임이다.

<유가08 10:18-19>

A: 如是[11~12(·)]所說[33(··)#33(·),42(·)]諸句[33(·),구결자(ㄱ)]顯示[2자합부-역독선]加行煞害[34(·),51(:)]{45(·)}

B: 如是[ᄉᆞ]所說[xㄱ,ㄴ]諸句[ㄱ]顯示加行煞害[乙,x ㅣ]

C: 是 {如}ᄉᆞ 說xㄱ 所ㄴ 諸 句ㄱ 加行 煞害乙 顯示x ㅣ

D: 이와 같이 말한 바의 모든 句는 加行 煞害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E: 이와 같이 말하는 바의 모든 글귀는 더욱 힘써 살해하는 것을 나타내 보임이며

<유가08 10:19-21>

A: 乃至[22~32(·)]極下[11~21(-),=42(·)]梶多蟻等[33(/)]諸衆生[23(·)]所[44(·),51~52(.·)]者[23~33(··)]此句[33(·)]顯示[2자합부-역독선]无擇煞害[34(·),55(:)]

B: 乃至[ㅐ]極下[ㅌ,ㄴ]梶多蟻等[ㅅㄱ]諸衆生[ㅋ]所[十,x ㅣ]者[xㅅㄱ]此句[ㄱ]顯示无擇煞害[乙,xㅎ]

C: 乃至ㅐ 極下(ㅅ)ㅌㄴ 梶多蟻 等ㅅㄱ 諸 衆生ㅋ{所}十x ㅣ{者}xㅅㄱ 此 句ㄱ 无擇 煞害乙 顯示xㅎ

D: 極下한 梶多蟻 등까지의 모든 중생에게 있다 하는 것은, 이 句는 无擇 煞害를 나타내 보이며,

E: 맨 아래의 쿤다 개미 따위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중생들 처소라 하는 이 글귀는 살해하는 데에 가리는 것이 없음을 나타내 보인다.

<유가08 10:21-23>

A: 於煞生事[44(·)]若未遠離[51(·),3자합부]者[23~33(··)]此[33(·)]顯[역독선]遇[역독선]緣[34(·),22(·),33(·)?]容可出離[42(/),53(/)][5]謂乃{35(·),51(·)}至[22~32(·)]未遠離[삐침선(44,/)]來[34~44(·),구결

5) '離'자에 묵서로 동그랗게 표시를 하고 난상에 먼저 각필로 기입한 다음 먹으로 덧칠한 형태로 교정을 해 놓았다.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은 난상에 교정한 것에 의거하여 토를 단 것으로 해석되므로 여기서는 교정된 내용을 판독 및 해독에 반영하였다. 본문의 '離'자에는 교정되기 이전에 세 개의 구결점[42(\),35(/),53(:)]이 현토되어 있다.

자(火?)]名[54(·)]煞生{34~44(·)}者[53(·),45(\),51(:)]

B: 於煞生事[十]若未遠離[丨]者[x入ㄱ]此[ㄱ]顯遇緣[乙,氵,ㄱ]容可出離[ㅅㅎㄴ,x丄]謂乃至[ㅣ]未遠離來[火?]名[下]煞生者[丄,x入乙,x丨]

C: {於}煞生事十 若 未遠離(ㅣ)丨{者}x入ㄱ 此ㄱ 緣乙 遇氵ㄱ 出離ㅅㅎ{容可}ㄴx丄 謂 乃 至ㅣ 未遠離來火 名下 煞生者丄x入乙 顯x丨

D: 煞生事에 만약 未遠離다 하는 것은, 이는 緣을 만나면 出離할 수 있으니, 즉 내지 未遠離 동안만을 일컬어 煞生者라 함을 나타낸다.

E: 산 목숨 죽이는 일에서 만약 아직 멀리 여의지 못하였다 함은 이는 인연을 만나면 벗어날 수 있음을 나타내나니 아직 멀리 여의지 못한 동안까지는 산 목숨 죽이는 이라고 한다.

<유가08 10:23-11:02>

A: 又此諸句[42(·)]略義[22~32(·)]者[15~25(-),23~33(·)]謂[33(·)]爲顯示[2자합부-역독선]煞生相貌[31(·)]煞生作用[31(·)]{33~34(·),51(·),12(\)}煞生因緣[31(·)]及與[42(·)]煞生事用差[31(·),51(:)]別[31(·),34(·),지시선(/)]

B: 又此諸句[ㄴ]略義[ㅣ]者[尸,入ㄱ]謂[ㄱ]爲顯示煞生相貌[人]煞生作用[人]煞生因緣[人]及與[ㄴ]煞生事用差[人,x丨]別[人,乙]

C: 又 此 諸 句ㄴ 略義ㅣ{者}尸入ㄱ 謂ㄱ 煞生 相貌人 煞生 作用人 煞生 因緣人 及 與ㄴ 煞生 事用 差別人乙 顯示(ㅅ){爲}人x丨

D: 또 이 모든 句의 略義인 것은, 즉 煞生 相貌와 煞生 作用과 煞生 因緣 및 더불어 煞生 事用 差別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E: 또 여러 글귀의 간략한 이치라 함은 산 목숨 죽이는 모습과 산 목숨 죽이는 작용과 산 목숨 죽이는 인연 및 산 목숨 죽이는 일

과 쓰임에 관한 차별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며,

<유가08 11:02-05>

A: 又[14(·)]{31~32(·),42(·)}略義[22~32(·)]者[15~25(-),23~33(·)]謂爲顯示[2자합부-역독선]煞{21(·)}生如實[31(·)?]煞生差別[31(·)?]煞[역독선]所煞生[34(·),=45(/)#35(/),3자합부]名[54(·)]煞生者[53(·),+15~25(-),31(·),34(·),지시선(\)](又[31(·),51(:)])[6]

B: 又[ㄱ]略義[ㅛ]者[ㄲ,ㅅㄱ]謂爲顯示煞生如實[ㅅ]煞生差別[ㅅ]煞所煞生[ㄹ,xㅅㄹ]名[ㅜ]煞生者[ㅗ,ノㄲ,ㅅ,ㄹ]([ㅅ,xㅣ])

C: {又}ㄱ 略義ㅛㄲ{者}ㅅㄱ 謂 煞生 如實ㅅ 煞生 差別ㅅ 所煞生 ㄹ 煞xㅅㄹ 名ㅜ 煞生者ㅗノㄲㅅㄹ 顯示(ㄴ){爲}ㅅxㅣ

D: 또 略義인 것은, 즉 煞生 如實과 煞生 差別과 所煞生을 죽이는 것을 일컬어 煞生者라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E: 또 간략한 이치라 함은 산 목숨 죽이는 일에 흡사한 것과 산 목숨 죽이는 것의 차별과 죽음 당하는 목숨을 죽이게 되는 것을 산 목숨 죽이는 이라고 함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다.

<유가08 11:04-05>

A: 又([31(·),51(:)])此諸句[33(·),구결자(ㄱ)]顯[역독선]能煞生補特伽羅相[34(·),53(:)]非[역독선]{31(·),55(·)}顯[역독선]煞生法相[34(·),33(:)[7],51(·)?]

B: 又此諸句[ㄱ]顯能煞生補特伽羅相[ㄹ,xㅗ]非顯煞生法相[ㄹ,xㄱ,ㅣ]

---

6) 다음 글자인 '又'에 현토되어 있으나 '者'에 현토되어야 할 점토이다.

7) [33(·),33~43(·)]으로 분리해서 볼 수 있을 만큼 두 점의 거리가 멀다. 그러나 이 경우 글자의 자획을 피하려다 생긴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같은 구조의 구문으로 보이는 12장 8행에서는 점의 간격이 가깝고 33 위치에 기입되어 있다.

C: 又 此 諸 句ㄱ 能 煞生 補特伽羅相乙 顯x亠 煞生 法相乙 顯x ㄱ 非(矣)ㅣ

D: 또 이 모든 句는 能히 煞生 補特伽羅[8]相을 나타내는 것이지 煞生 法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E: 또 이 여러 글귀는 산 목숨을 죽이는 푸드갈라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요, 산 목숨 죽이는 법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유가08 11:06>

A: 復次不與取者[51(·)]者[23~33(·)#23~33(··)]此是[33(·)]捻句[22~32(·),55(·)]

B: 復次不與取者[ㅣ]者[ㅅㄱ]此是[ㄱ]捻句[ㅢ分]

C: 復 次 不與取者(ㅢ)ㅣ{者}xㅅㄱ 此 是ㄱ 捻句ㅢ分

D: 또한 또 不與取者다 하는 것은, 이는 捻句이며

E: 주지 않는데 가지는 이라 함은 이는 바로 총구이며,

<유가08 11:06-07>

A: 於他所有[51(·)]者[23~33(··)]謂他[23(·)]所攝[33(\),42(·)]財穀等[33(/)]事[22~32(·),=55(·)]

B: 於他所有[ㅣ]者[xㅅㄱ]謂他[ㅋ]所攝[ㅅㄱ,ㅌ]財穀等[ㅅㄱ]事[ㅢ,分]

C: 於他所有(ㅢ)ㅣ{者}xㅅㄱ 謂 他ㅋ 攝ㅅㄱ 所ㅌ 財穀 等ㅅㄱ 事[9]ㅢ分

D: 於他所有이다 하는 것은, 즉 남의 가진 바의 財穀 等의 일이며

E: 다른 이의 소유라 함은 다른 이에게 딸린 재물과 곡식 따위이며,

<유가08 11:07-09>

---

8) 補特伽羅(pudgala) =數取趣. 輪廻의 主體인 有情 즉 나(我).

9) 형식 명사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A: 若在聚落[44(·),51~52(.·)]者[23~33(··)]謂卽彼事[22~32(·)]於聚落[42(·)]中[44(·)?]若積集[=15~24(/),31(·)]若移轉[15~24(/),31(·),55(·)]

B: 若在聚落[十,x ㅣ]者[x ㅅ ㄱ]謂卽彼事[ㅢ]於聚落[ㄷ]中[十]若積集[ㅅ ᄉ,人]若移轉[ㅅ ᄉ,人,ᄀ]

C: 若 聚落十 在x ㅣ{者}x ㅅ ㄱ 謂 卽 彼 事 ㅢ {於}聚落 ㄷ 中十 {若}積集 ㅅ ᄉ 人 {若}移轉 ㅅ ᄉ 人(ㅢ)ᄀ

D: 혹은 聚落에 있다 하는 것은, 즉 곧 저 일이 聚落 中에 積集하는 것과 移轉하는 것이며

E: 마을에 있으면서라 함은 곧 그 일이 마을 안에서 쌓아 두거나 옮기기도 한다는 말이며,

<유가08 11:09-10>

A: 若閑靜處[44(·),51~52(.·)]者[22~23(··)]謂卽彼事[22~32(·)]{32(·)}於閑靜處[44(·)]若生[15~24(/),31(·)]若集[15~24(/),31(·)]或[32~42(·)][10]復移轉[15~24(/),31(·),55(·)]

B: 若閑靜處[十,x ㅣ]者[x ㅅ ㄱ]謂卽彼事[ㅢ]於閑靜處[十]若生[ㅅ ᄉ,人]若集[ㅅ ᄉ,人]或[ㅅ]復移轉[ㅅ ᄉ,人,ᄀ]

C: 若閑靜處十x ㅣ{者}x ㅅ ㄱ 謂 卽 彼 事 ㅢ {於}閑靜處十 {若}生 ㅅ ᄉ 人 {若}集 ㅅ ᄉ 人 或 ㅅ 復 移轉 ㅅ ᄉ 人(ㅢ)ᄀ

D: 閑靜處에서다 하는 것은, 즉 곧 저 일이 閑靜處에 生하는 것과 集하는 것과 혹 또 移轉하는 것이며

E: 한가하고 고요한 데라 함은 곧 그 일이 한가하고 고요한 데서 생기고 모이고 혹은 옮겨지기도 한다는 말이며,

---

10) 『유가사지론』 자토구결에서는 '或'에는 구결이 현토되어 있지 않다. 『화엄경』 자토구결에서는 'ㄱ'와 'ㅅ ㄱ'이 현토되어 있다. '或ㅅ'의 'ㅅ'는 음독 표시일 가능성도 있다.

<유가08 11:10-11>

A: 卽此[34(·)]名[54(·)]爲可盜[42(\),33(/)]物數[51(·)]{55(·.)}者[22~23(··)]謂所不與[35(·)]不捨[35(·)]不棄[35(·),33(\)42(·)]物[22~32(·),55(·)]

B: 卽此[乙]名[下]爲可盜[ノ方七,ソ丁]物數[丨]者[xㅅ丁]謂所不與[ㅋ]不捨[ㅋ]不棄[ㅋ,ノ丁,七]物[リ,ケ]

C: 卽 此乙 名下 {爲}盜ノ方{可}七ソ丁 物數(リ)丨{者}xㅅ丁 謂 不與(ソ)ㅋ 不捨(ソ)ㅋ 不棄(ソ)ㅋノ丁 所七 物リケ

D: 즉 이를 일러 훔칠 수 있는 物數다 하는 것은, 즉 不與하고 不捨하고 不棄하고 한 바의 物이며

E: 곧 이를 훔칠 수 있는 물건의 수라 함은 주지 않고 베풀지 않고 버린 물건이 아닌 것이다.

<유가08 11:11-12>

A: 若自[11]執受[51(·)]者[23~33(··)]謂執[15(·)]爲己[23(·)]有[22~23(·),11~21(-),24(·),+25(/),55(·)]{+15(·)}[12]

B: 若自執受[丨]者[xㅅ丁]謂執[ホ]爲己[ヲ]有[斗,ヒ,ㅐ,ソx矢,ケ]

C: 若自執受(リ)丨{者}xㅅ丁 謂 執ホ 己ヲ {有}斗ヒ {爲}ㅐソx矢ケ[13]

---

11) 희미한 선이 있다.

12) 반복되어 나타난다.

13) '-ヒ {爲}ㅐ-'의 형태는 [여기다]로 해석하는 방안과 [삼다]로 해석하는 방안이 있다. 漢文(Classical Chinese)에서는 [여기다]와 [삼다]로 해석되는 '爲'가 通用되는 경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삼다]의 의미 중 특수한 경우에 [여기다]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자토구결과 점토구결의 『유가사지론』에서는 [여기다]로 해석 가능한 '爲'에 '11~21(-),24(·)'가 배정되어 '-ヒ {爲}ㅐ-'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는 잠정적으로 이런 경우의 '爲'도 크게 보아 [삼다]로 해석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D: 自執受다 하는 것은, 즉 잡아서 자기의 두는 것으로 삼는 것이며
E: 스스로 받아 가진다 함은 가져다 자기 소유로 삼는다는 말이며,

<유가08 11:12-13>
A: 不與而取[51(·),4자합부]者[22~23(··)]謂{34~44(·)}彼[33(·)]{22~23(·)}或[33(/)]時[53(·),44(·)]資具{34(·)#34(·.)}闕少[=22(·),]執[15(·)]爲己[23(·)][14]有[22~23(·),11~21(-),24(·),+25(/),55(·)]{+15(·)}
B: 不與而取[ㅣ]者[xㅅㄱ]謂彼[ㄱ]或[ㅅㄱ]時[ㅗ,十]資具闕少[ㅈ]執[ホ]爲己[ㅋ]有[ㅐ,ㅌ,ㅕ,ㅅx矢,ㅀ]
C: 不與而取(ㅟ)ㅣ{者}xㅅㄱ 謂 彼ㄱ 或ㅅㄱ 時ㅗ十 資具 闕少(ㅅ)ㅈ 執ホ 己ㅋ {有}ㅐㅌ {爲}ㅕㅅx矢ㅀ
D: 不與而取이다 하는 것은, 즉 그는 어떤 때에 資具가 闕少하여 잡아서 자기의 두는 것으로 삼는 것이며
E: 주지 않았는데 가진다 함은 그가 어떤 때에 살림 도구가 모자란다 하여 가져다 자기 소유로 삼는다는 말이며,

<유가08 11:13-14>
A: 不與{15(·)}而樂[51(·),4자합부[15]]{42(·)}者[22~23(··)]謂樂[21(·)]受行[2자합부-역독선]偸盜事業[34(·),+25(/),55(·),경계선,4자합부]
B: 不與而樂[ㅣ]{者}[xㅅㄱ]謂樂[ㅎ]受行[2자합부-역독선]偸盜事業[乙,ㅅx矢,ㅀ]
C: 不與而樂(ㅟ)ㅣ{者}xㅅㄱ 謂 樂ㅎ 偸盜事業乙 受行ㅅx矢ㅀ
D: 不與而樂이다 하는 것은, 즉 즐겨 偸盜事業을 受行하는 것이며
E: 주지 않았는데 즐긴다 함은 훔치는 일을 즐거이 받아 행한다는

14) 절박사와 유사한 선이 있다.
15) '不與而'에서 행이 바뀌나 '不與而'에 3자합부가 표시되어 있고 그 선이 테두리를 넘어서 길게 연장되어 있어 4자합부로 판독하였다.

말이며,

<유가08 11:14-16>

A: 於所不與[35(·)?]不捨[35(·)]不棄[35(·),33(\),44(·),22(·)]而[43(·)]生希望[34(·),+25(/),51(·)]者[22~23(··)]謂{+55(·)}劫盜[=22(·)]他[23(·),22(·),34(·),지시선(/)]欲爲己[23(·)]有[22~32(·),11~21(-),24(·),31(·),+25(/),33~43(·)]

B: 於所不與[ㅎ]不捨[ㅎ]不棄[ㅎ,ㅅㄱ,十,ㅈ]而[ㅱ]生希望[乙,ㅅx矣,ㅣ]者[xㅅㄱ]謂劫盜[ㅈ]他[ㅋ,ㅈ,乙]欲爲己[ㅋ]有[ㅗ,ㅌ,ㅓ,人,ㅅx矣,印]

C: {於}不與(ㅅ)ㅎ 不捨(ㅅ)ㅎ 不棄(ㅅ)ㅎㅅㄱ 所十(ㅅ)ㅈ 而ㅱ 希望乙 生ㅅx矣ㅣ{者}xㅅㄱ 謂 他ㅋㅈ乙[16] 劫盜(ㅅ)ㅈ 己ㅋ {有}ㅗㅌ {爲}ㅓ{欲}人ㅅx矣印

D: 不與하고 不捨하고 不棄하고 한 것에서 希望을 내는 것이라 하는 것은, 즉 남의 것을 劫盜해서 자기의 두는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니

E: 주지도 않고 베풀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은 것에 욕망을 낸다 함은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 소유로 삼으려 한다는 말이다.

<유가08 11:16-17>

A: 若彼物主[22~32(·)]非[17]先[54(·)]所與[33(\),33~43(·),34(·),구결자(印)],如酬債法[+11~21(·),+45(/)]{53(:)}是[22~32(·),34(·)]名[54(·)]不與[53(·),35(·)]

B: 若彼物主[ㅣ]非先[下]所與[ㅅㄱ,印,乙]如酬債法[支,xㅅ乙]是[ㅣ,乙]名[下]不與[ㅗ,ㅎ]

---

16) 天尊ㄱ 快ㅎ 十四王ㅋㅈㄴ 說ㅁㅅㄴㄱ {是}ㅣ 故ㅱ 我ㄱ 今ㅅㄱ 略ㅎ 佛ㄴ 歡ㅅ白ㅁㅏㄹㅣㅅㅂㅅㄴㅣ <구역인왕경上:11:13> 참조.

17) 절박사로 보이는 선이 있다.

C: 若 彼 物主ㅣ 先下 與ノ丁 所 非(矢)印乙 酬債法 {如}支x入乙 {是}ㅣ乙[18] 名下 不與亠(ン)ヨ

D: 만약 그 物主가 먼저 준 것이 아니거늘 酬債法 같이 하는 것을, 이를 일러 不與라 하고

E: 만약 그 물건 주인이 먼저 주는 바가 아닌 것을 마치 빚 갚는 법 같이 하면 이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며,

<유가08 11:17-18>

A: 若彼物主[22~32(·)]於彼取者[23(·),44(·)]而[43(·)]不捨與[15~25(-),34~35(\)#35(\)]{25(·)}是[34(·)]名[54(·)]不捨[53(·),=35(·)]

B: 若彼物主[ㅣ]於彼取者[ラ,十]而[灬]不捨與[尸,ノ丁乙]是[乙]名[下]不捨[亠,ヨ]

C: 若 彼 物主ㅣ {於}彼 取者ラ十 而灬 捨與(ン)尸 不(多)ノ丁乙 是乙 名下 不捨亠(ン)ヨ

D: 만약 그 物主가 그 取한 자에게 捨與하지 않았거늘, 이를 일러 不捨라 하고

E: 만약 그 물건 주인이 그 가지는 것을 베풀어 주지 않았으면 이를 베풀지 않았다라고 하며,

<유가08 11:18-19>

A: 若彼物主[22~32(·)]{32~42(·)?}[19]於諸衆生[23(·),44(·)]不隨所欲[22(·),32~42(·)]{44(·)?}受用[+15~25(-),34(·),21(·)]而[43(·)]棄[15~25(-),34~35(\)#35(\)]是[34(·)]名[54(·)]不棄[53(·),35(·),+55(·.)]

---

18) '是'를 훈독한 것으로 처리했으나, 『유가사지론』 권8의 다른 부분에서 '是'를 음독한 경우는 없다.

19) 문맥을 고려하여 '八'에 해당하는 '32~42(·)'은 해독에 반영하지 않았다.

B: 若彼物主[ㅣ]於諸衆生[ㅋ,十]不隨所欲[ㅋ,ㅅ]受用[ノ尸,乙,ノ]而[灬]棄[尸,ノ丁乙]是[乙]名[下]不棄[亠,ㅋ,x分]

C: 若 彼 物主ㅣ {於}諸 衆生ㅋ十 欲(ソ)ㅋㅅ 受用ノ尸 所乙 隨ノ 而灬 棄尸 不(多)ノ丁乙 是乙 名下 不棄亠(ソ)ㅋx分

D: 만약 그 物主가 모든 중생에게 가지고 싶어 受用할 바를 좇아 버리지 않았거늘, 이를 일러 不棄라 하고 하며

E: 만약 그 물건의 주인이 중생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받아 쓰도록 내버린 것이 아니면 이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한다.

<유가08 11:19-21>

A: 自爲{41(·)?,25(·)}而取[51(·)]者[23~33(··)]謂不與[34~35(\)#35(\)]而[43(·)]取[43(|)]故[55(·)]及不與[34~35(\)#35(\)]而樂[=21(·),43(|)]故[55(·)]

B: 自爲而取[ㅣ]者[x入丁]謂不與[ノ丁乙]而[灬]取[x灬]故[分]及不與[ノ丁乙]而樂[ㄱ,x灬]故[分]

C: 自爲而取(ㅣ)ㅣ{者}x入丁[20] 謂(丁) 與(尸) 不(多)ノ丁乙 而灬 取x灬{故}分 及 與(尸) 不(多)ノ丁乙 而(灬) 樂ㄱx灬{故}分

D: 自爲而取다 하는 것은, 즉 주지 않았거늘 가지기 때문이며 및 주지 않았거늘 좋아하기 때문이며

E: 자신을 위하여 가진다 함은 주지 않았는데 가졌고 주지 않는데 즐거워하기 때문이요,

<유가08 11:21-22>

A: 饕餮[21]而取[51(·),4자합부]者[23~33(··)]謂[33(·)]所不與[=35(·)]不捨[35(·)]不棄[35(·),33(\),=44(·)]{45(·)#45~55(·)#55(·)}而[43(·)]

20) 아직 확정적이지 않지만 'ソ土入丁'으로 읽을 수 있다.

21) 원문은 각각 '탐낼 도'와 '탐낼 철'의 이체자이다.

希望[43(|)#52~53(·)]故[55(·)]

B: 饕餮而取[ㅣ]者[xㅅㄱ]謂[ㄱ]所不與[ㅎ]不捨[ㅎ]不棄[ㅎ,ㅅㄱ,十]而[ㅱ]希望[xㅱ]故[ㅏ]

C: 饕餮而取(ㅢ)ㅣ{者}xㅅㄱ 謂ㄱ 不與(ㅅ)ㅎ 不捨(ㅅ)ㅎ 不棄(ㅅ)ㅎㅅㄱ 所十 而ㅱ 希望xㅱ{故}ㅏ

D: 饕餮而取다 하는 것은, 즉 不與하고 不捨하고 不棄하고 한 것에 대해 希望하기 때문이며

E: 탐내면서 가진다 함은 주지도 않고 베풀지도 않고 버리지 않았는데도 희망하기 때문이요,

<유가08 11:22-23>

A: 不{25(·),44(·)}淸而取[51(·)]者[23~23(··)]謂於所競[22][+15~25(-),42(·)?]物[44(·)]爲[역독선]他[23(·)]所勝[+15~25(-),34(·),32~42(·),22(·)]不淸{41(·)}[23]雪[43(|)]故[55(·)]

B: 不淸而取[ㅣ]者[xㅅㄱ]謂於所競[ㅅㄹ,七]物[十]爲他[ㅋ]所勝[ㅅㄹ,乙,ㅅ,ㅋ]不淸雪[xㅱ]故[ㅏ]

C: 不淸而取(ㅢ)ㅣ{者}xㅅㄱ 謂(ㄱ) {於}競ㅅㄹ 所七 物十 他ㅋ 勝ㅅㄹ 所乙 爲ㅅㅋ[24] 淸 雪 不(ㅅ)xㅱ{故}ㅏ

D: 不淸而取다 하는 것은, 즉 다투는 것의 物에 대해 남의 이길 바를 당해서 깨끗하게 누명을 씻지 못하기 때문이며

---

22) 이체자이다.

23) 점토인지 확실치 않으나 점토로 인정한다면, 자토구결의 '永ㅗ'와 같이 부사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4) 原文은 漢文에서 전형적으로 被動을 표현하는 구문인 '爲A所B' 구문이다. 이 경우 화엄경 점토구결에서는 '14(i),41(··)'이 배정되어 '-ㅢㄹ{爲}ㅅㄹ ㅅ-'로 표현되지만, 점토구결 『유가사지론』에서는 '爲'에 '32~42(·)'가 배정되어 '-ㄹ 爲ㅅ-'로 표현된다. 『유가사지론』 자토구결에서도 '爲A所B'에는 '-ㄹ 爲ㅅ-'가, [되다]의 의미로 기능하는 '爲'에는 '-ㅢㄹ{爲}ㅅㄹ ㅅ-'로 표현된다.

E: 맑지 못하게 가진다 함은 다투는 바의 물건에 있어서 남에게 짐으로써 누명을 맑게 씻지 못하기 때문이요.

참고 문헌

김영욱(2001), 「『유가사지론』 점토(點吐)의 해독 방법 연구」, 『구결연구』 7, 구결학회, 57-77쪽.

박진호(2004),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2)」, 『구결연구』 12, 구결학회, 216-231쪽.

서민욱(2004), 「'如'에 호응하는 점토에 대하여」, 『구결연구』 13, 구결학회, 175-220쪽.

이승재(2001), 「『유가사지론』 각필 부호구결의 해독을 위하여」,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이광호선생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229-250쪽.

이용(2004),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3)」, 『구결연구』 12, 구결학회, 233-247쪽.

이전경(2004),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4)」, 『구결연구』 13, 구결학회, 221-243쪽.

장경준(2002), 「點吐釋讀口訣 자료에 기입된 口訣字와 대응 口訣點에 대하여 -『유가사지론』 권5,8을 대상으로-」, 『구결연구』 9, 구결학회, 205-225쪽.

장경준(2004가),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1)」, 『구결연구』 12, 구결학회, 192-212쪽.

장경준(2004나), 「구결점의 현토 위치 변이 현상에 대하여」, 『구결연구』 13, 구결학회, 149-174쪽.

〔411-755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에이스 10차 아파트 102동 1002호〕
E-mail: sutra01@hotmail.com
접수일자: 2004. 10. 30.
게재결정: 2005. 1. 29.

A Study on Cipher Kugyols Inscribed in Yogacārabūṃmi(瑜伽師地論)

-Focusing on vol. Ⅷ. 10:12-11:23-

Kim, Seong Ju

This paper surveys the brief history on Buddhism and the overall structure of Yogacārabūṃmi(瑜伽師地論) preached by Maitreya(彌勒) and written by Asaṅga(無著), and presents a tentative decoding and interpretation of cipher kugyols inscribed in the volume.

Key words: Yogacārabūṃmi(瑜伽師地論), cipher kugyol(點吐釋讀口訣)